

# 'OTT 오리지널 진안' 행사 개최

### 군, 산악 트래킹·캠핑 결합... 산길 걸으며 자연과 교감·심신 치유

진안군은 지난 26일~27일까지 주천, 용담, 안천면 일원에서 산악 트래킹과 캠핑을 결합한 전국단위 행사인 'OTT 오리지널 진안'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인 'OTT'는 'On The Trail'의 약자로 아영할 수 있는 용품을 가방에 짊어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1박 2일간 아영하며, 지역의 대표 길과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재밌는 코스로 완성하는 백패킹과 도보 중심의 건강한 하이킹 행사다.

군은 백패킹을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진안고원에서 자연

과 교감을 느끼며 일상에 지친 심신의 회복을 돕는 치유 관광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OTT 파인드 진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비교적 난코스인 장거리 걷는 'OTT 오리지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주천면 △구봉산 부근에서 시작해 △명도봉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지나 용담면의 △지장산을 거쳐 △안천면대곡적실 내구장까지 약 45km를 완주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지역 소비를 강조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참여자는 "코스 사이사이에 안내소에서 마신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오미자차와 사과주스의 맛은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음료보다 꿀맛이었다"라며 "진안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며 산과 들을 걷는 동안 각박한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해방돼 마음의 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군민회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안착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 무주군, 200여명 대상 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군민회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이해를 돕고 무주군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신규공무원을 비롯한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민기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특별법 이해 △시군 특성에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군민회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맞는 특례 발굴 방안, 그리고 △타 시군 특례 적용 선행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의 시간에는 타 시

도의 모범사례를 어떻게 무주군에 접목해 나갈지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풍그라운드골프 봉사단 교통사고 예방 거리 캠페인

지난 24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자원봉사단 중 무풍그라운드골프 봉사단이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오늘 1시간 가량 펼쳤다. 어르신들은 무주군 무풍면 주요 거리에서 현수막과 팸말을 들고 주민들에게 안전운전과 노인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무풍그라운드골프 봉사단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노인 자원봉사단의 4개 클럽 중 하나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현수막과 팸말에 담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전체회의 개최

진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강당에서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군민배심원단은 경제육성, 문화관광, 복지생활, 인재양성, 소풍행 등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률 73.6%를 달성하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군민배심원단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양일 동안 분과별로 회의의 거쳐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각 공약사

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변경 적정성을 심의했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진안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행률 100% 달성으로 평가했다.

이날 전체 회의의 주재한 윤금상 단장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은 단순히 사업을 완료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지역을 살리고 주민을 실질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유념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강당에서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무주경찰, 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한 응급처치 훈련

무주경찰서는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재난 및 치안 현장에서의 위급환자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의 선제적인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훈련은 무주소방서에서 전문교관을 초빙해 무주경찰서 전 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요령 등 현장활동 경찰관이 적절하고 즉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행동화 훈련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녹비작물로 건강한 토양 만든다

진안군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녹비 작물로 건강한 토양 만들기 실증연구'를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비 작물은 재배 후 토양에 환원하여 비료 역할을 하는 뜻겨움작물로 호밀, 수단그라스, 네마장황 등은 토양 병해(배추뿌리혹병 등) 및 해충을 억제(뿌리혹선충 밀도 83%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상추 생육 178% 증가)을 향상시켜 단순한 유기질 비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군은 맥류-콩, 감자-수단그라스/네마장황 작부체계 시범 재배를 실시했고, 그 결과 토양 유기물함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토양 염류장해를 개선해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녹비작물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배 후 일부를 자가 채종하여 녹비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콩과와 화분과인 녹비작물처럼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질의 생산과 보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생체량이 많고 토양전전성을 높이는 토종 녹비작물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경식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녹비작물을 재배관리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각양각색 따로 또 같이'

### 무주군, 귀농·귀촌인 축제... 안정적인 정착 도모 향인홍 군수, 군 귀농귀촌협의회 감사피 수여받아

무주군 귀농·귀촌인 축제 '각양각색, 따로 또 같이'가 지난 26일 무주읍 예제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화합의 장을 열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자부심을 키워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풍물놀이로 시작해 공식 행사와 베틀시장(플리마켓), 동아리 작품 전시회 등이 개최됐다. 공식 행사에는 향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4백여 명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국악예술단 '시월', 무주군민합창단의 공연과 장기자랑 등도 이어져 재미를 더했다. 향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무주군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박종환 회장은 "무주에 정착해 살면서 이웃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2014년에 구성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무주군 홍보 및 귀농·귀촌 정책 설명,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수행하며 도시민과 무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향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귀농·귀촌인 여러분"이라며 "무주로 왔던 마음이 날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무주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모두 3,656세대 5,334명으로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올해는 43억여 원 투입해 귀농귀촌인 유치 및 활성화, 주거 안정, 정착, 영농활동 지원과 임시 거주 시설 조성·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선택과 집중 통해 축제·행사 새로운 방향성 찾아야"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24일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행사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장정복 의원은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비슷한 축제와 행사들이 난립하는 현 상황과 최근 3년간 4배가량 증가한 축제 개최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나타나는 부작

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축제·행사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제와 행사에서의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의견 축소에 대해 언급하며, 행사에 참석 인사의 소개, 인사말, 참여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정복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 등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수군 축제와 행사에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센터장 김현철)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접수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짚대,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파쇄해 퇴비화 또는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은 "영농부산물

의 적절한 처리가 환경 보호와 농업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장수군의 친환경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350-28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도 지역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장수군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실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29일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 유형에 대비해 매년 법국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과 재난 초기 대응체계 및 실천 대응 역량 강화 등 국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이뤄진다. 훈련은 지진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문제 해결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장수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과 통합지원본부 운영현장 훈련(한누리전당)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수군 8개 협업부서 및 5개 유관기관, 3개 민간단체 협업체계구축 등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체·시민 체험단 참여 등 민간역량 확대 △재난 상황 보고 등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자체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등 훈련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국립관리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립관리소(소장 서영성)는 지난 24일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무주소방서와 군청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송진선로 주변 산불 발생을 가상으로 효율적인 진화 및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고·접수·초기대응·진화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및 기관 간 상황전파 대응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했다. 산불지휘처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 야간 산불 대비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 운용 등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발전소 옥외소화전 및 지위소방대 활용한 초동진화 후 진화대원의 부상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 신고 및 구급차 수용 등 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소장 안길선)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영암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에서 폐암발목을 활용한 탄소중립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개최되는 국립공원 박람회는 영암군이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전라남도, 국립공원공단이 후원하며 대한민국 23개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나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월출산, 달빛 남나들이'를 주제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린다. 국립공원공단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전시관 △23개 국립공원 홍보·체험부스 △명품마을 특산품 판매 △국립공원 안전교실 △이동식 탐방안내소 △국립공원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폐암발목을 활용한 캠퍼치와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덕유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린다.

/무주=전문선 기자